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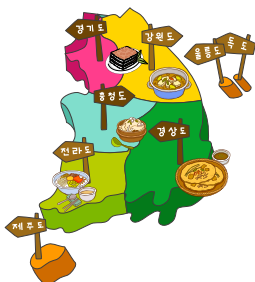
전통시장 명물음식, 클릭 한 번에 우리 집까지!

“퀵 배달은 안 되나요?” 전통시장에서 떡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먼 곳에 사는 단골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영업자나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만 즉석식품 배달이 허용돼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집에서든 시장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 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규제완화 덕분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로 매출을 올리게 됐고, 손님들은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 음식을 편리하게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 7만7,000여개('13년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의 소득 증대,
소비자 편의 증대



개선 전

전통시장 빵집, 떡집, 참기름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

개선 후

즉석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퀵서비스나 택배로 배달 판매 가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5월, '14.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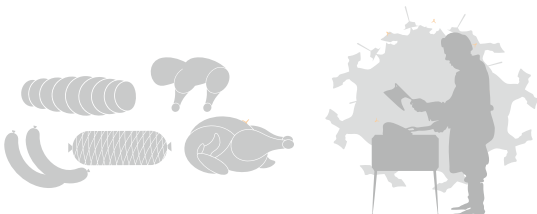
100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식파라치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누가 닭을 포장한 채로 사갑니까? 한 달 벌이를 고스란히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H씨의 하소연입니다. 전통시장의 오랜 판매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생닭 포장판매 의무 규제 탓에, 많은 영세 상인들이 과태료 폭탄을 떠안곤 했습니다.

생닭 파파라치의 기승으로 속을 앓던 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포장규제 완화 덕분에 해소됐습니다. 이제 위생요건을 갖춘 전통시장 판매업소라면, 생닭을 포장 없이도 진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전국 1,372개 전통시장에서
연 7억5,000만원 포장비용 절감 예상



개선 전

닭 · 오리 식육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함

개선 후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닭 · 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어 진열 · 판매 가능

* 위생요건 : 냉장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식육을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개폐형 냉장진열상자, 식육 전면의 표지판 등을 이용한 표시, 식육에 직접 접촉하는 얼음 사용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식약처, '14.10월)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8)

택배기사, 단속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일해요!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어쩔 수 없겠습니까? 불법인 건 알지만 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택배기사 D씨는 불법 화물운송 단속 위험에도 자가용 화물차로 배달을 합니다. 한편, D씨와 계약한 C택배사는 배송 물량이 늘어나며 더 많은 차량이 필요했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공급을 제한하는 규제에 막혀 부족한 차량을 마땅히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D씨와 계약을 체결해 배송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D씨와 C사의 고충이 한꺼번에 해소됐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택배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배달 차량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허가를 제한하던 규제가 풀리며 D씨와 같은 영세 택배기사가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택배용 화물차 1만2,000대의 신규공급을 통해 차량 부족 문제도 해소됐습니다.



- 1만2,000여명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상과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 예방 효과



개선 전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공급(허가) 금지

개선 후

택배차량 부족분 1만2,000대 공급

‘201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부, '14.8월)

도시가 살아난다! 관광객이 늘어난다!

“우리는 외국인 관광 민박집이라 외국인 손님만 받아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숙박업을 하는 H씨는 숙박 문의 전화에 이런 대답을 할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쇠퇴하던 구도심이 예술촌으로 재탄생하며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관광객에겐 숙박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H씨가 사는 지역은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관광자원을 조성한 지역들이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게 됐지만 정작 내국인이 숙박할 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박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엔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과 고용창출을 이끌게 됐습니다.



-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관광 여건
개선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과 발전에
기여



개선 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관광객에게만 숙박을 제공하고,
내국인관광객에게는 숙박 제공 불가

개선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제공이 가능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14.11월)

뷔페영업자 부담 낮아지고, 제과점 매출 올라가고!

뷔페음식점 사장 M씨는 빵맛 좋기로 유명한 B제과점 빵을 구입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B제과점이 8km 거리에 위치한 까닭입니다. 거리제한 규제를 따르려면 5km이내의 제과점에서만 빵을 구입해야 하지만 M사장은 도무지 5km안에서 맛있는 빵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게에 제과기계와 인력을 더 들여놓기엔 자금 부담이 큼니다.

이제 M사장은 걱정 없이 B제과점에서 당일 조리한 빵을 구입합니다. 거리제한 규제가 풀린 덕택입니다. 뷔페음식점은 관할 구역 내 5km 내의 제과점 빵만 구입·판매할 수 있게 했던 규제가 사라지며, 동네 빵집은 소득을 늘리고 뷔페는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뷔페영업자의 영업비용 절감(제과인력 및 제과기계류 구입비 등) 및 동네 제과점의 매출 증대



개선 전

뷔페음식점은 관할 구역 내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 가능

개선 후

뷔페음식점의 제과점 빵류 구입 거리제한 규제 폐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5월)

제 꿈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왜 헤어미용까지 배워야 하나요?”

어릴 때부터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던 K씨는 메이크업샵 창업에 도전하기 위해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다 막막해졌습니다. 메이크업에 대한 기술만 배우고 싶은데도 커트, 퍼머 등 헤어미용기술까지 배워야 미용사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성에 안 맞는 헤어미용까지 배우려니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국가기술자격취득부터가 큰 난관입니다.



메이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 요건완화로 이 같은 고충이 해소됐습니다. 지금까지진 메이크업 기술을 위한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하려면 헤어미용기술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메이크업을 미용 기능사 자격종목에서 따로 분리한 자격증이 신설돼서 메이크업 기술 습득만으로도 국가기술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 메이크업 분야의 취업 · 창업을 위한 자격취득 비용과 기간 단축

2008년 기준 미용사(일반) 자격취득자 약 42만명 중 13만명이 메이크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 자격취득자의 31%가 메이크업 기술 습득만을 필요로 함



개선 전

메이크업은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종목에 포함
- 메이크업 기술을 위해선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 필요

개선 후

메이크업을 미용사(일반) 기능사 자격종목에서 분리해
미용사(메이크업) 기능사 자격종목 신설
메이크업 기술 습득만으로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메이크업
기술 가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2월 개정 예정 (고용부, '15.7.1 시행)